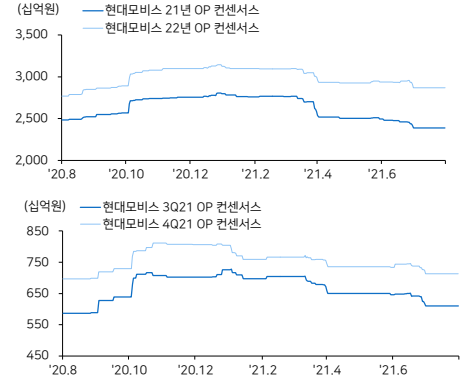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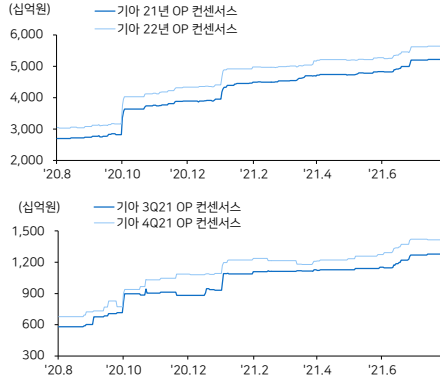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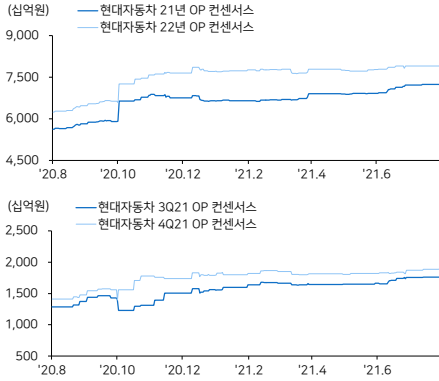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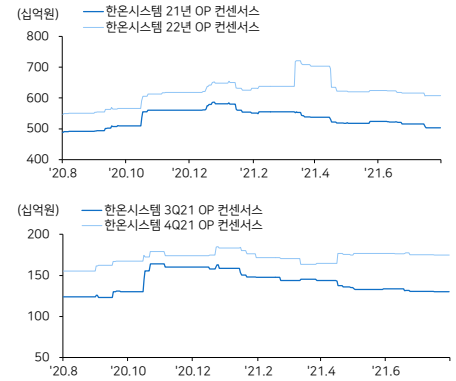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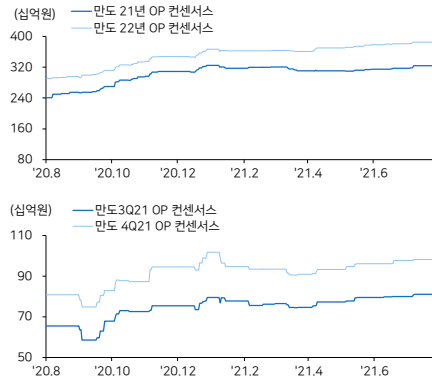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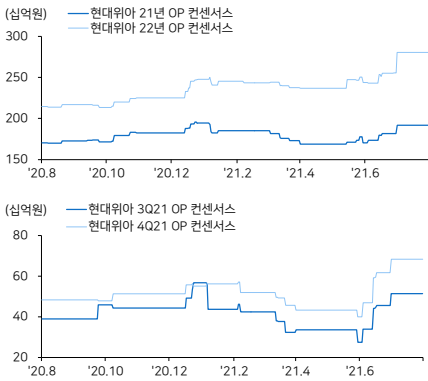


커버리지 컨센서스 추이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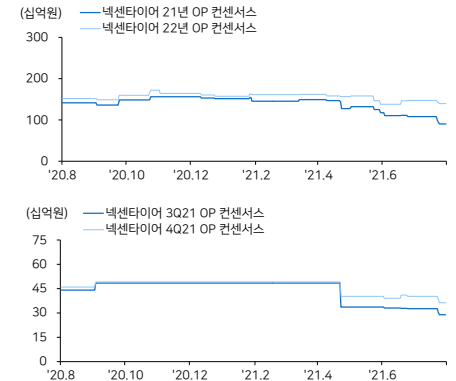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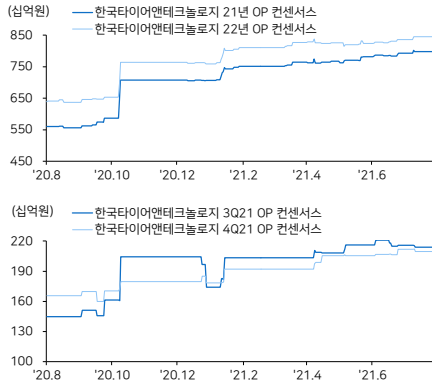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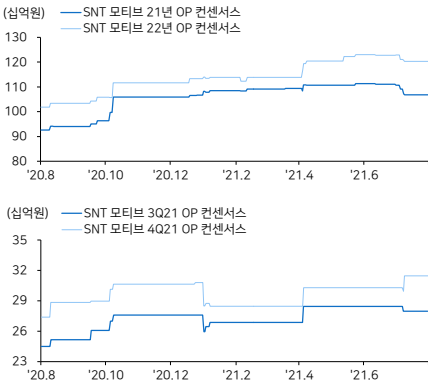
현대차 / 기아 /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 만도 / 한온시스템



S&T모티브 / 한국타이어 / 넥센타이어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국내외 주요 뉴스

정부, 현대차와 손잡고 2025년까지 전기·수소택시 10만대 보급(시사저널)

환경부는 서울시, 개인택시연합회, 현대차·기아, SK에너지 등과 전기·수소택시 보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함. 오는 2025년까지 전기택시 및 수소택시 10만대를 보급하기로 함.

<https://bit.ly/2WcuWo3>

남새 나는 펠리세이드'美 집단소송 철회... '현대차 책임' (THE GURU)

최근 미국에서 불거진 현대자동차 SUV '펠리세이드' 남새 관련 집단소송이, 원고 측이 자발적으로 소송을 철회하며 일단락됨. 현지에서 교통약자를 위한 차량출납사업 'Enable LA'를 펼치고 있는 만큼 웨스턴 이미지 회복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됨.

<https://bit.ly/3385gY9P>

온라인 후 판매 열풍...현대차도 뛰어든다 (한국경제)

온라인 자동차 판매 열풍이 거세지는 중이며, 이전부터 온라인 판매를 시작한 수입차 업체는 물론 국내 업체도 뛰어드는 모습. 현대차는 하반기 출시할 경형 SUV '캐슬라'를 온라인으로 판매할 계획. 노동조합과도 협의할 예정.

<https://bit.ly/3sLkiAu>

중 완성차업체 2025년 전기차 판매비중 20%까지 올린다 (머니투데이)

중국 제일제강에 따르면 상하이자동차, 광저우자동차, 이차자동차, 동펄자동차 등 6대 자동차 그룹은 각 사가 발표한 '14차 5년 계획'에서 2025년까지 전기차 판매비중을 약 20%로 높이겠다고 밝힘.

<https://bit.ly/32zhVKKK>

동남아 코로나19에 토요타 생산 타격, 현대차 기아 미국에서 반사이익 (비즈니스포스트)

코로나19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유발한 동남아발 부품 부족상황은 토요타와 혼다 등 일본 완성차업체의 생산에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됨. 이로 인해 현대차와 기아가 미국 시장에서 반사이익을 볼 가능성이 제기됨.

<https://bit.ly/3B4tVNu>

'GV60' 세계 첫 비접촉 충전 가능...600대 한정판 (The Drive)

GV60은 플러그 앤드 차지(PNC)와 무선충전을 결합해 자동으로 충전되는 비접촉 충전 방식을 탑재할 예정. 신차는 올해 하반기 국내에 먼저 출시되며, 무선충전 옵션 차량은 연말까지 600대 한정 판매에 테스트를 진행할 예정.

<https://bit.ly/2WjAVXE>

현대모비스 中 사업 독자전환...현대제철은 현지법인 '구조조정' 착수 (이투데이)

18년부터 영업이익이 손실로 전환된 현대모비스 중국 사업부가 올 상반기 영업이익 51억 9,200만원을 기록하며 반등에 성공.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50억 원대에 불과하지만, 현지 사업이 저점을 통과한 이후 흑자로 전환했다는 데 의미.

<https://bit.ly/3guZV7H>

구글 자율주행계열사 웨이모, 샌프란시스코서 로보택시 시험운영 (연합뉴스)

웨이모가 샌프란시스코에서 선별된 승객에게 인간 운전자가 탑승하는 로보택시 서비스를 시험 개시함. WSJ은 샌프란시스코에서 벌일 시험 운영이 웨이모에 기술적으로, 사업적으로 중요한 시험이 될 것이라고 지적함.

<https://bit.ly/3guZ6tj>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